

'천사' 마라도나 벽화 앞 포옹하는 아르헨 여성들

등록 2021.11.25 09:18:07



[부에노스아이레스=AP/뉴스시스] 아르헨티나의 축구 스타 고 디에고 마라도나의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24일(현지시간)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두 여성이 마라도나 벽화 앞에서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. 2021.11.25.